



16면

"가장 좋은 복지, 일하는 복지"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음 6월 12일) 제282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 실시

전북도, 대중교통 종사자 최우선 19개 대상군 선정
1회차 2만4000명, 24일까지 사전예약 후 26일 접종
콜센터 종사자 등 2회차 대상자는 내달 중 접종 시행

전북도는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지자체 자율접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전북도의 특성 및 방역 상황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을 통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방역상황에 대응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율접종으로 공급 예정인 백신은 mRNA(화이자 또는 모더나) 9만 2,000명분(18만 4,000회분)으로, 도는 질병관리청의 지자체 자율접종 시행 방침에 따라 전북도 공급물량에 대해 접종대상 및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도가 선정한 자율접종 추진대상군은 ▲대중교통종사자, ▲민원업무 공무원, ▲환경미화(소독업), ▲학원종사자, ▲장애인, ▲자원봉사자, ▲이미용 및 목욕장 종사자, ▲외국인근로자, ▲금융업·우체국 종사자 등 19개 대상군으로 14개 시·군 의견수렴 후 지역 협의체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다만, 선정된 대상군 중 1차 접종자 및 접종 미동자, 기 접종예약 대상인 50대(1962년~1971년생)는 제외된다.

지자체 자율접종은 1회차와 2회차로 나눠 시행되는데, 1회차 대상자 2만 4,520명(9개 대상군)에 대해 22일 오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사전예약 진행후,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백신으로 오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종할 계획이다.

1회차 접종 대상자는 대중교통종사자, 민원업무공무원, 환경미화(소독업), 학원종사자, 외국인근로자, 우체국종사자, 자원봉사자, 이미용·목욕탕업 종사자 등으로 1회차 접종 대상자 중 SMS문자나 카카오톡 수신을 통한 대상자는 사전 예약 안내 문자를 질병청에서 오는 22일 일괄 발송한다.

2회차 접종대상자는 1회차 대상군 중 명단 미제출자, 장애인, 금융업, 콜센터종사자, 대형마트 및 백화점종사자, 음식접종종사자, 택배기사 등 약 6만 8천명으로 1회차 접종이 종료되는 8월 중 접종예정으로, 세부일정은 중앙계획이 확정되면 안내될 예정이다.

최훈 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도내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를 자율접종 대상군에 포함시켰으니 사업주가 관심을 갖고 외국인 근로자가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며 "전 도민 70% 이상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해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K푸드 대표선수' 김치, 도쿄올림픽 태극전사 응원

aT, 韓선수단에 국산 김치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가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21일부터 선수단에 국산 김치를 제공한다.

공사는 동원, 대상 등 회원사로 구성된 제일한국김치수입협회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며, 한국선수단

이 안전하고 건강한 김치를 먹고 힘을 내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김춘진 사장은 "우리 선수단이 국산 김치를 드시고 더욱 힘을 내시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마케팅으로 김치를 전 세계에 알려 올해 수출 목표인 1억 8,000만달러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정읍 대표 향토기업, 입암면 철도농공단지에서 공장 신설

디에스앤피, 도·정읍시와
25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철강제품 생산공장 들어서
다원시스와 협력으로
상생 시너지 효과 기대



20일 정읍시청에서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유진섭 정읍시장, 이종태 ㈜디에스앤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농공단지 투자 협약식이 열렸다 (사진=정읍시청 제공)

정읍의 대표 향토기업인 ㈜디에스앤피가 정읍시 입암면에 소재한 철도농공단지에서 250억원 규모의 철강제품 공장을 신설한다.

정읍시와 전북도, ㈜디에스앤피는 20일 정읍시청에서 철도농공단지에서 250억원의 투자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디에스앤피 이종태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디에스앤피는 철도농공단지 4만2,878㎡ 부지에 250억원을 투자해 공장 신설과 함께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된다.

또 회사 운영에 따른 35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투자 이행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와 전북도는 투자보조금 지원과 인허가 절차 진행 등 행정적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디에스앤피는 지난 2014년에 설립한 이후 매년 30~40%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정읍시의 대표적 우수 향토기업이다.

2019년에는 전북 유망중소기업에 선정, 2020년 포스코 이노빌트 인증 획득, 2021년 모범납세자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요 생산품은 철강을 이용한 각종 형강관(KS D 3568)과 C형관 등으로 전국 150여 개의 대리점에 납품하고

있으며, 향후 수출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한 철도농공단지의 철도차량 생산 전문회사인 ㈜다원시스와의 업무 협력으로 인한 상생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우리 정읍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인 디에스앤피의 투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디에스앤피가 정읍시를 넘어 전라북도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종태 대표는 "우리 회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정읍시와 전라북도

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정읍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발전에 미력하거나 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인 간담회와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내 기업 애로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과 각종 공모사업 선정, 기업의 고충과 규제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5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가축의 적 폭염 '물러가라~'

도, 축산분야 폭염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가축재해보험 지원 확대·상황실 운영 등

위한 '폭염대피 가축사육환경 개선 사업'에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도는 앞서, 약품지원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적정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줄어드는 만큼, 시군을 통해 지난 6월까지 조기 추진 완료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축사시설현대화와 온·습도 조절 및 환기제어 시스템 등이 적용되는 스마트축사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축산환경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

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14개 시·군 축산부서와 9월까지 '가축 폭염대책 상황실'을 운영, 폭염피해 상황을 신속정확히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무더위에 취약한 가축(가금류, 돼지)을 중심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집중 지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축산농가는 사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환기시설 관리, 충분한 급수,

복사열 최소화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폭염주의보나 경보 발효 시 더욱 더 축사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사료 급여를 자제하고, 서늘한 아침과 저녁에 소량을 자주 급여하며, 단위면적당 권장 사육 두수보다 10%정도 줄여 가축을 입식하고, 출하가 임박한 가축은 조기 출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폭염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스스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 발생 시 보상을 통한 농가 손실 최소화 및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는 빠짐없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만기일 도래 이전 적기에 갹신해 출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